

인도불교미술-인도국립박물관 소장품展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28일까지

불상은 언제부터 만들었을까?



4세기 마투라·쿠산-굽타시대의 불두

기원전 2세기부터 20세기까지 2200여 년간 인도 대륙에서 꽃핀 불교미술 걸작 51점이 서울로 들어왔다. 인도 초기 불교의 불탑 부조, 간다라 불상, 사르나트 불상, 후기 밀교의 보살상 등 인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51점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1월 18일~2월 28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문화센터(02-3789-5600)에서 전시 중인 '인도불교미술-인도국립박물관 소장품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보여주는 석조 부조물, 불상 불탑, 의식구 등 다양한 진품 유물이 시대별 지역별로 선보인다. 전시장은 불교미술의 시원(始原), 불상의 탄생과 흥륭, 고전기의 불교미술, 새로운 신 다양한 형상, 경전화의 세계, 남아 있는 전통 등 총 6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객원 큐레이터로 전시에 참가한 이주형 교수(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는 "불교나 인도 미술에 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이들뿐 아니라 인도 문화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도 인도 불교 미술사의 흐름을 흥미롭게 둘러보며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를 공동 주최한 인도국립박물관 K.K.차크라바티 관장은 "간다라 불교미술품을 통해 인도와 한국을 잇는 공통의 사상, 특히 해동고승전 왕오천축국전 삼국유사 등을 양국의 학자들이 공동 연구해 양국의 문화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전시회의 의의와 양국 문화교류의 의미를 설명했다.

전시장을 찾은 이들뿐 아니라 인도 문화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도 인도 불교 미술사의 흐름을 흥미롭게 둘러보며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불교미술의 시원(始原) 불교미술은 탑과 사원 등의 부조에서 시작된다. 산지대탑 등 탑과 사원벽에 새겨진 부조물 가운데 전시장에 있는 "바르후트 불탑의 울타리 부조"를 만날 수 있다. 이 부조들은 석가모니 부처의 과거생을 실한 본생담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현생을 조각한 불전도 등이 주류이다.

기원전 1~2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바르후트 불탑은 1873년 알렉산더 커닝햄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탑의 돌은 모두 사라지고 울타리의 남동쪽 4분의 1만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이 석자들은 원래 모습대로 복원돼 캘커타의 인도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 불상의 탄생과 흥륭 우리가 불상을 유물로 보게 되는 것은 기원후 1세기 경이다. 당시 간다라와 마투라에서 처음으로 불상이 만들어졌다.

인더스 강 상류에 자리 잡은 간다라의 문화는 인도 본토의 문화와 달리 이란과 서양고전문화가 영향을 미쳤다. 이 곳에서 헬레니즘 미술양식과 불교가 만나 간다라

석조 부조물 등 걸작 51점 전시 진품 유물 시대·지역별로 선별 인도불교미술사 흐름 엿볼 기회



19세기 라다크에서 불교의식에 사용된 라마의 보관.

양식이 탄생했다.

간다라 지역과 거의 비슷하게 불상이 제작되기 시작한 마투라가 조각의 중심지로 떠오른 것은 기원전 2세기. 불교조각은 기원후 1세기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투라의 석조 조각은 적색 사암을 사용해 다른 지역과 확연히 구분된다.

전시에서는 간다라 탁실라 칼라완 사원지에서 출토된 1~3세기 작품 '마야 부인의 꿈' '붓다의 탄생' '학교에 가는 태자' '불전 장면' 등의 부조들이 눈길을 끈다. 2~3세기에 제작된 불일상, 채색된 불좌상 등 간다라 양식의 불상과 불두 불좌상 등 마투라 출토 불상들이 선보인다.

▲ 고전기의 불교미술 굽타 왕조가 지배한 기원후 320~550년은 인도 문명의 각 부문에서 완성이 이루어졌다. 당시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물질적인 번영과 함께 문화적인 황금기였다.

장엄하고 우아한 마투라와 사르나트 불상, 아잔타 석굴의 화려한 채색벽화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불교미술이다. 이 시기에 제작된 사르나트의 다양한 불일상과 마투라 불상, 거기에 포스트 굽타시대에 나타난 오늘날 불상 형태와 유사한 불좌상이 전시장에 배치됐다.

▲ 새로운 신 다양한 형상 굽타시대 이래 점차 흥기한 밀교는 7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인 체계를 갖췄다. 이 시기는 밀교의 복잡한 도상들이 불교미술에 다양하게 반영된 때이기도 하다.

4~6세기 초기 밀교는 석가모니불을 주존으로 삼으며 관음상이 유행했다. 중기 밀교에서는 주존으로 마하

비로자나가 등장하고 만다라를 수행에 사용했다. 8세기에 성립한 후기 밀교는 탄트라 불교라 불린다.

동인도 팔라시대의 불좌상 보관불좌상, 도리천에서 내려오는 붓다, 관음보살좌상, 스와트와 카슈미르의 관음보살상 등 다양한 상호와 양식의 불상들이 시대의 특성을 드러낸다.

▲ 경전화의 세계 이 코너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남긴 경전 필사본 가운데 네팔에 남아 있는 <팔천송반야경> 필사본과 다섯 수호여신경의 모음집인 <관차락사> 필사본 등이 선보인다. <관차락사> 필사본은 11세기 작업부터 17세기까지 세 종류의 필사본이 들어왔다. 13~14세기 <관차락사> 필사본에 따르면 다섯 여신은 모두 색깔로 구분된다. 흰색은 마하프라티사라, 파란색은 마하사하스라프라마르다니, 노란색은 마하마유리, 초록색은 마하시타바티, 빨간색은 마하만트라누사리니이다.

▲ 남아 있는 전통 살아있는 종교미술로서 그 명맥이 끊긴 인도불교미술의 생명과는 달리 그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불교미술의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

전시에서 선보인 라다크에 남아 있는 19세기 보관은 티베트계 라마승이 불교의식 때 쓰던 것이다. 밀교 의식에서 라마가 장식구로 쓰던 펜던트와 38개의 산호와 76개의 마노구슬로 만들어진 염주, 붓대를 비슈누신의 아홉 번째 화신으로 간주했던 힌두교도들이 의식용 수레에 붙였던 불좌상, 불전을 세긴 상아 장식 등이 남아 있는 인도불교미술의 전통을 잇고 있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11세기 동인도 팔라시대에 조성된 보관불좌상.



티베트 밀교의식에서 라마가 사용한 장식구.



인도 비하르에서 10세기에 제작된 팔대보살 부조.



네팔에서 제작된 <팔천송반야경> 필사본.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 법요집 · 기초교리집 과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교리**

- 삼귀의
- 천인행한다
- 반야심경
- 입정

**법요집**

- 청법가
- 법문
- 경문
- 발원 및 축원

**· 사용서원**

- 신화가
- 기타찬불가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한장과 반배
7. 고두래
8. 예불은
9. 예불은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살심재론

과도를 구매하시는 모든분께 고승일전도서·용성근스님 운허근스님 사운종으로 드립니다. (정가 16,000원) 2권을 사운종으로 드립니다. (사운종은 연액 100원만 드립니다.)

· 특별보급가: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호전화] 02-2004-8218~9  
**Mahamall.co.kr 02-732-1520**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대요?

## 蔘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게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특성이 전혀 없고 정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蔘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척산삼(長鬚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蔘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아졌다.
- 전신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아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번비가 나아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아졌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봉사는 마음으로 열거에 드리고자 합니다. (성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품: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1Box(60포 : 20만원) 2Box(120포 : 35만원)

1Box(60포 : 15만원) 2Box(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563-8292 / H · P : 011-9242-8292  
 홈페이지 www.mansam.net  
 · 계좌번호 : 농협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아간 : 031)706-3060

불확실한 시대의 평생직업! 자격취득을 위한 절호의 기회!

## 무료역학사 양성 특별강좌

귀의 삼보하고도 항상 좋은 만남이 되게 하소서!  
 금번 본원에서는 신도확보 및 포교의 일환으로 동양학 연구회의 자문과 감사진의 지원을 받아 역학사 자격취득을 위한 특별 무료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설코자 합니다.

**무료역학사 양성 특별강좌**

- 과 목 : 1. 불교기초교리 및 예절, 동양철학 기초 (특별반, 일반인 대상)  
2. 전문명리학, 음택, 양택, 육효, 상담비법, 비방 (전문자격 취득반 대상)
- 개 강 : 2006년 2월 24일
- 일 정 : 매주 수 · 금요일 오후 1~3시 저녁반 7~9시
- 기 간 : 특별반 1개월, 전문 자격반 5개월
- 자 격 : 불교 및 동양철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학력 넘어 연령 제한없음)
- 장 소 : 지하철 이수역(4,7호선 2번출구) 국민은행 뒷건물 4층(덕원정사)
- 특 전 : 우수자 분회 정회원 및 학술위원 위촉, 전문반 이수시 전원 취업보장, 전문상담실 개설시 전폭지원.
- 접수 : ☎ 02)533-6258, 1577-4940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특히 사업기반이나 경협이 없고 직업이 없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 덕원정사 02)595-4167  
 지원 : 동양학 연구회